근대 초기 소설 개념의 외연과 내포

이수형*

목 차

1. 서론
2. 서사 양식과 근대소설
3. 소설의 외연: 명칭의 계보
4. 소설의 내포: 사실과 허구의 관계
5. 결론

1. 서론

『독립신문』(1896), 『매일신문』(1898)의 창간과 함께 1900년대에는 신문을 비롯한 여러 인쇄 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서사물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는바, 대화·문답·토론·연설 등의 형태를 띤 풍자, 꿈이나 동물을 끌어들인 우화,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다룬 전기, 당대의 일상을 배경으로 사건을 서술한 신소설 등이 이 시기에 실험된 서사물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초기의 신문은 단순히 발표 매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사의 다양한 분화를 촉발시킨 중요한 계기였으며,[1] 따라서 당시의 신문

*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면에는 문답체 풍자, 몽유록 형식의 우화, 전통적인 형식의 전(傳)이나 전기, 신소설 등, 그 시기에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서사물들이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물들이 그 하위 양식과는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소설'이라는 표제를 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첫째, 당시 소설이라는 명칭이 서사 양식 일반을 가리키는 것에 가까웠다는 것과 둘째, 소설로 통칭된 서사의 하위 양식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가치 평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근대소설의 가치에 입각한 문학사적 관점이 정립됨으로써 근대 초기의 서사물들은, 근대소설과 많은 친연성을 갖은 신소설과 부분적으로는 역사소설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역사 전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근대소설과는 다른 것, 나아가 근대소설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평가는 그 이후 오랫동안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와 달리 '소설'이라는 명칭의 가치를 미리 전제하지 않고 근대 초기 서사물 전반에 접근하려는 관점에 기반한 연구는 비교적 뒤늦게 형성되어 이 시기 서사의 외연을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근대 초기 서사의 자생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2] 물론 서사의 외연이 넓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규범적(prescriptive)이거나 기술적(descriptive)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전자가 엄밀한 장르 구분을 통해 다양한 서사물들을 분류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당시의 명칭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서사물의 유형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본고는 근대 초기 서사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당시에 통용되었던 '소설'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그 특징을 사실과 허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1) 권영민, 「개화계몽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한국문화』 1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72쪽.
2)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 10, 깊은샘, 2003, 36쪽.
3)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를,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을 들 수 있다.

2. 서사 양식과 근대소설

앞에서 신소설을 제외한 근대 초기의 서사물들이 대체로 근대소설 미달로 평가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김태준이나 임화 등 초기 문학사 연구자들의 저술에서 그와 같은 평가를 찾아볼 수 있다.

> 이 신문들은 모두 언한(諺漢) 혼용체로 문장의 힘과 문학의 취미를 통하여 인민을 감화시키고 각성시키는 데 많은 공로가 있었다. 예컨대 '동포여, 동포여, 지호(知乎)아, 부호(否乎)아, 생호(生乎)아, 사호(死乎)아' 하는 강개한 문구의 나열이었다. 그 신문의 한 모퉁이에는 지금의 '횡설수설'이나 '팔면봉'란 모양으로 '사조'(詞藻)란과 '장회(章回)소설'란 같은 것이 있어서 이로써 독자의 문학적 취미를 만족시켰다. 〔……〕 융희 2년(1908년—인용자)에는 이와 같은 저작(번역물—인용자)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왔다. 현순의 「포와 유람기」를 비롯하여 「후레두익 칠년전사」, 「보법전기」, 「나파륜전사」, 「파란말년전사」, 「월남망국사」, 「라마사」, 「서사건국지」, 「미국독립사」, 「법란신사」, 「경제미담」, 「애국부인전」, 「금수회의록」, 「피득대제전」 등이 그것이다. 당시에 양기탁, 박은식 씨와 함께 『매일신보』의 필자가 되어 있던 성균박사 신채호 씨(단재)가 「이태리삼걸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몽견제갈량」, 「독사여론」 같은 역사소설을 지어 신생면을 개척한 것도 씨의 독창에서 나온 것이며 융성한 정치사상과 국가관념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
> 그러나 이때까지는 시사를 개탄하는 정치언론을 중요시하고 순문학 같은 것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 그러나 신문예운동의 요람기에 있어서 신진제국 특히 일본의 문예사조 중에서 자가(自家)의 정론(政論)에 맞는 것을 수입하는 동안에 우리는 일찍 시세(時世)의 목탁이 되고 문학운동의 급선봉이 되는 사람 국초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육당 최남선 제씨를 잊을 수가 없다.[4]

1933년 간행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의하면 번역과 국문운동을 통

4)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24-226쪽.

해 근대적인 문학운동이 시작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례로 문학적 취미를 만족시킨 신문의 '사조'란과 '장회소설'란의 등장, 그리고 번역물의 폭발적인 증가를 들고 있다. 그러나 김태준에 의하면 이러한 문학은 계몽주의적이며 정치언론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근대문학으로서의 '순문학'(belles lettres)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본격적인 근대문학(근대소설)은 일본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은 이인직, 이해조 등의 신소설 작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39년『조선일보』에 연재된 임화의「개설 신문학사」에서도 이러한 논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 『조선소설사』의 저자 김태준 씨에 의하면 신문학이 탄생되기 전 독자의 문학적 취미를 만족시킨 것은 당시의 신문 일우(一隅)에 실렸던 '사조'란과 '장회소설'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첫째는 그때 신문들이 정치나 민중계몽 이외에는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때문이요, 둘째는 그들로서 독자에게 제공할 만한 적당한 작품(정치적이고 계몽적인)이 있었던 까닭이요, 셋째는 그들의 문학관이 실로 소박하고 오로지 공리적이어서 순정(純正)한 의미의 문학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 그러므로 '사조'란이나 '장회소설'란은 그야말로 취미를 만족시키는 대상에 불과하여 한시나 한문에다 토만 단 것 같은 문장이나 부(賦), 심지어는 고문체풍의 작물(作物)까지가 이런 난을 채우고 있었다. 거기에다 오직 시세를 개탄하고 강개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 데 지나지 않았다. 신문뿐이 아니라 제종(諸種)의 잡지에서까지 모두 사조란이란 게 반드시 있고 이따금 소설이라는 제하(題下)에 그런 류의 문장이 실려있음을 볼 수가 있다. 〔……〕 소박하고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여 문학이라고 하기엔 주저되나 그러나 정론적인 작품이 조선서는 대부분 수입되고 제작되었다. 여기에 비하여 영국 정치소설은 물론 일본의 정치소설도 훨씬 문학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다.
>
> 『가인지기우』(佳人之奇遇)라든가『정해(政海)의 정파(情波)』라든가 하는 제명에서도 엿볼 수 있는 정론(政論)을 외형이나마 소설

> 에 유사한 형태로 싼 반정론(半政論), 반소설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선에서는 그것이 공문서나 경서풍이나 신문잡지의 논설이 아니고 사실(史實)이나 설화의 형식을 빈 것으로 겨우 문학이라 칭할 수 있는 정도였다.[5]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 역시 근대소설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근대 초기의 서사물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초기의 서사물들은 정치적, 계몽적, 공리적이기 때문에 순문학("순정한 의미의 문학")이 아니며, 그보다 좀 더 근대문학에 가까운 영국과 일본의 정치소설(Staatsroman) 역시 한국에 수입된 것은 대부분 정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서사물은 단지 논설(dissertation, essay)의 형식이 아니라 사실(history)이나 설화(story)의 형식을 띠었다는 것, 다시 말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차용하고 설화에 가탁"했다는 것에 의해서 "겨우 문학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다. 임화 역시 "신문, 잡지 위에도 신문학의 선구인 창가나 신소설류가 차차 실리지 시작하여 독자의 눈을 놀라게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신소설에 이르러 근대소설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김태준과 임화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순문학'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논의에 의하면 근대소설은 무엇보다 순문학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때의 '순문학'은 전통적인 문학과 달리 서구의 영향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다.[6] 그 '순문학'의 맞은편에 '겨우 문학적인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의 기준이 되는 '문학'은, 가령 김동인이 "현금 조선 사람 중에 대개는 아직 가정소설을 좋아하오, 통속소설을 좋아하오, 흥미 중심 소설을 좋아하오. 참 예술적 작품 참 문학적 소설은 읽으려 하지도 아니하오"라고 말했을 때의 '문학'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7] 김

---

5) 임화,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134-136쪽.
6) 전통적인 개념의 문학이란 육예(六藝)의 총칭이거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학문을 한다는 뜻이었으나, 서구적인 문학 개념의 도입 이후 미적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로 인식되기 시작한다.(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29쪽)
7) 김동인,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학지광』, 1919. 1, 45쪽.

동인이 말한 '참 문학적 소설'과 '통속소설'의 대립이 근대문학의 가치를 승인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임화가 말한 '순문학'과 '겨우 문학적인 것'의 대립은 김동인의 경우와 같이 '참 문학적 소설'과 '통속소설'의 대립이기보다는 '근대소설'과 '(반드시 근대적인 것만은 아닌) 서사 양식'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엄밀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겨우 문학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임화가 의도했던 바는 이야기(story)와 화자(storyteller)의 존재라는, 서사 양식의 최소한의 조건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8] '참 문학적 소설'과 '통속소설'의 대립이 가치 평가적인 것인 데 반해, '근대소설'과 '서사 양식'의 대립은 가치 평가를 벗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 문학적 소설'과 '통속소설'의 대립에서 '통속소설'은 '참 문학적 소설'보다 저열한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대소설'과 '서사 양식'의 대립에서는 양자의 관계가 단순한 우열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진화론적 문학사가 은폐하기 쉬운 비동시대성(non-contemporaneity)의 문제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 〔근대 초기 신문의〕 논설란에 실린 서사적 성격의 글들은 전통적 서사 양식을 다양하게 수용하여 현실을 반영·비판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부분이 이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비등해진 위기의식으로 인해 인간행동의 객관적인 형상화를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진실을 밝히게 할 여유마저 갖지 못한 상황에서 논설진들은 기존의 다양한 문학적 의장을 빌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 했고, 위기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문학적 글쓰기였으며, 이것이 가능했던 공간이 논설란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소설란'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말해 근대적 제도로서의 문학이 그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미분화의 상태에서 서사문학은 논설란을 빌어 명맥을 이어가면서 그 가능성을 실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

8) R. Scholes·R. Kellogg, 『서사의 본질』, 임병권 옮김, 예림기획, 2001, 12쪽.

임화의 표현에 의하면, 사실(史實)이나 설화의 형식을 빌린, '겨우 문학적인 것'일 수 있던 서사물들이 최근의 연구에서는 서사문학의 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서 '서사 양식'이란 임화가 말한 '순문학'에 가까운 개념이 아니라, "문학적 의장을 빌어 자신들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된 글쓰기 방식, 즉 메시지를 사이에 두고 발신인(sender)과 수신인(receiver)이 맺는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진술방식의 일종이 된다.[10]

3. 소설의 외연: 명칭의 계보

근대 초기에 소설은 서사 양식 전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11] 앞서 말한 것처럼, 풍자, 우화, 전기, 신소설 등이 신문에 게재되거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 소설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 ① 모처 병문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앉아 각기 소경사로 보고 들은 말을 서로 논란하는데 그중에 인력거꾼 한 아이 가로되, 나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 모든 친구에게 묻나니, 내가 인력거로 생애하는 고로 남북촌 재상가도 많이 가서 보고 각처 연회에나 연설하는 곳에도 더로 가서 들은즉, 정부조짚 정부조짚 하니 정부에서 조짚은 하여 무엇에 쓰려는지 (……) 이 말을 듣고 일좌가 박장대소하여 왈, 이 무식한 놈아, 정부조짚이란 말도 있던가. 정부조직이라 하는 말이지, 조직이라 하는 말은 물론 무엇이든지 짠다는 말이니 정부조직은 정부를 짠다는 말이다.[12]

---

9)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191쪽.
10)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근대소설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서사물들이 근대 초기의 '소설'에 요구되었던 계몽성의 확보에 있어서는 좀 더 성공했다는 점을 덧붙일 수 있다.
11) 권영민, 앞의 책, 67쪽.
12) 「거부오해(車夫誤解)」, 『대한매일신보』, 1906. 2. 20.

② 병오년 봄에 소대잔함을 휴면하고 가족을 단합하여 농장에 돌아오니 비록 영웅사업을 이루거나 공이 이루어져서 몸을 은퇴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스스로 태평세월에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한가로운 백성이로다. 비록 그러하나 동양 정세와 자국 정형을 생각하면 심담이 영락하고 계산이 서지 않는다. (……) 어느 날 갑자기 신문지를 독파하고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책상머리에 덕국사 일편을 빼어들고 근세 일등 영걸 스태인 비사막전을 열람타가 피곤한 빌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북풍 시원한 바람 아래 책을 안고 누우니, 창밖에 태양은 느릿느릿 지고, 오동나무 그들도 적적하다. 홀연히 낮잠이 진하게 와서 유유일몽에 표표이거할새, 천수만산을 경과하여 한 곳에 도달한즉.[13]

③ 이에 라란을 재촉하여 내각 제원을 연합하여 왕께 글을 올려 가로되, 만약 국가를 편안하며 사직을 이롭게 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속히 이 안건을 실행하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신등은 해골을 빌어 물러가고 다시 왕을 위하여 주선할 수 없삽나이다 하였는데, 이 상소에 문필은 정묘하며 강직하고 사리는 간략하며 명백함에, 의론하는 자 가로되, 법국 사기의 공문 문자 중에는 이 것이 제일이라 하였고, 그 기안을 지은 자는 실로 라란 부인이라.[14]

④ 그때 옥련이가 고등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중에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조선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 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13) 유원표, 『몽견제갈량(夢見諸葛亮)』, 광학서포, 1908, 9쪽.
14) 『라란부인전(羅蘭婦人傳)』, 대한매일신보사, 1907, 18쪽.

이름이 옥련이라.[15]

①은 '정부조직'을 '정부조짚'으로 오해한 인력거꾼의 무식을 비웃고 바로잡아주는 짧은 서사물의 한 장면으로, 문명의 변화에 뒤떨어지지 말 것을 충고하는 일종의 풍자이다. ②는 나라를 걱정하다 낙향한 '나(밀아자)'가 비스마르크 전기를 읽다가 잠이 드는 부분인데, '나'가 꿈에서 제갈량을 만나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세에 관해 토론한다는 우화이다. ③은 프랑스 대혁명 때 활약한 롤랑 부인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의 한 대목이다. ④는 청일전쟁 중 일본군 군의관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옥련이 여러 곡절을 거쳐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 역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버지와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 신소설의 한 부분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초기에 소설이라는 명칭의 외연은 대단히 넓다. 어떤 명칭의 외연이 그 명칭이 지시하는 사물이라고 정의한다면, 근대 초기 소설의 외연은 풍자, 우화, 전기, 신소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사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설의 외연이 이처럼 넓어진 것은 소설이라는 명칭의 역사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근대소설 개념이 수입되면서 소설이라는 명칭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명칭을 근대소설(novel)의 번역어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소설 명칭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엽 이후 한국, 중국,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소설이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는데, 이는 1886년 출간된 츠보우치 쇼요(坪內逍遙)의 『소설신수』(小說神髓)에서 novel의 번역어로 소설을 채용한 데 따른 것이다.[16] 츠보우치는 '쇼세츠'(小說)라는 한자어를 'ノベル'〔noberu〕라고 훈독하기도 했다. 소설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중국의 『장자』에 처음으로 등장한 소설이라는 말은 청대의 『사고전서』에서 잡사(雜事), 이문(異聞), 쇄어(瑣語)로 분류되어 있어 괴담(怪談)이나 수필류를 지칭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17] 중국에서 소설은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하위에 있는 담론

15) 이인직, 『혈의 누』, 광학서포, 1907, 69쪽.
16) 조동일, 「중국·한국·일본 '小說'의 개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3, 330쪽.
17) 이보경, 『문(文)과 노벨(novel)의 결혼: 근대 중국의 소설 이론 재편』, 문

혹은 비공식적이고 열등한 역사의 한 유형으로 인식되었다. 반면에 현재의 감각에서 소설로 분류할 만한『수호전』,『홍루몽』등의 백화 문학은 연의(演義), 설부(說部), 패사(稗史), 전기(傳奇) 등으로 불리었다.[18] 명대부터 예외적이고 부분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 중국의 전통적인 소설의 외연은 백화(白話)로 쓰인 민중들의 글쓰기가 아니라 문언(文言)으로 쓰인 문인들의 글쓰기에 국한된 것이었고, 이후에 양계초가 일본의 번역어인 정치소설을 일반 민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어체로 쓰인 문학으로 소개한 20세기 초부터 백화 문학을 소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19]

중국의 경우, 근대의 영향에서 기인한 소설 개념의 변화는 전통과의 단절이 아니라 외연 확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컨대, 백화 단편소설을 발표하여 중국 최초의 근대소설가로 평가되는 노신(魯迅)은 1923년 간행한『중국소설사략』에서 고대의 신화와 전설, 경사(經史)에 속하지 않는 서사물 전반을 소설에 포함시키고 있다.[20] 다시 말해, 중국의 소설 개념은 전통적으로 소설이라 불리던 것을 대체로 포함하면서, 그중에서 인물 설정이나 사건 전개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만을 제외하는 선에서 형성되었다.

일본은 이와 달랐다. 일본의 문헌에서도 중국의 전통적 소설 개념을 찾을 수 있으나, 근대 이전의 일본에서 소설은 주로 중국소설에 일본식 구두점을 붙여 간행한 것을 지칭했다. 막연히 서사적인 것을 의미하는 소설이라는 명칭이 근대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한국이나 중국과 달리 일본에는 모노가타리(物語), 조시(草子), 게사쿠(戱作)와 같이 서사물을 지칭하는 명칭이 별도로 존재했다. 18세기경부터 일본 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소설은 게사쿠로 범칭되던 서사물의 하나인 요미혼(讀本)의 일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21]

학과지성사, 2002, 100쪽.

18) 루샤오펑 저,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역사에서 허구로: 중국의 서사학』, 2001, 76쪽.

19) 이보경, 앞의 책, 102쪽.

20) 조동일,『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서울대출판부, 1993, 418쪽.

21) 조동일,『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459쪽. 게사쿠라는 명칭은 滑稽本, 談義本, 油落本, 黃表紙, 咄本, 人情本, 合卷, 讀本 등 에도시대의 다양한 서사물을 범칭한다.

『경국미담』이 간행되어 정치소설이라는 새로운 서사물이 등장하고 난 3년 뒤, 츠보우치는 『소설신수』에서 novel의 번역어로 소설을 채택하면서, 이때 소설은 게사쿠와는 달리 세상의 인정과 풍속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평상시에 세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22] 이에 따르면 일본의 소설은 전대의 서사물과는 단절된 의미를 가지며, 일본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생산적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한자어들과 유사한 위상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한국의 경우, 근대 초기의 소설 개념은 중국의 전통에서 유래한 측면과 일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이 서사물 전반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 명칭이 전통적인 의미망 안에 놓여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예컨대, 잡저(雜著)에 포함되어 있는 「동호문답」이나 「의산문답」과 같은 전통적인 문답체, 그리고 외전이나 야담, 야승에 들어 있는 한문 단편을 소설로 분류하는 전통적인 소설관과 근대 초기 신문에 실린 풍자나 우화를 소설이라고 인식하는 감각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24]

전기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다. 중국 전통의 소설 개념에 역사를 보충한다〔補史〕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25] 공식적인 전기라고 할 수 있는 열전(列傳)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로 분류되었다. 이 점은 근대 초기

22)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331쪽

23) 조동일은 츠보우치가 novel의 번역어로 일본 고유의 명칭 대신 소설을 택한 이유를 소설이라는 말에서 고급문화의 취향, 즉 통속적이거나 흥미 위주가 아닌 어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서도 비슷한데, 소설이라는 전통적인 명칭이 백화 문학을 배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백화 문학을 포괄하려고 한 것은 사상성이 부족한 백화 문학을 조정하려는 문인-지식인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조동일, 앞의 책, 330쪽; 이보경, 앞의 책, 102쪽)

24) 정선태, 앞의 책, 42쪽; 김영민, 앞의 책, 47쪽 참조. 두 책에서는 과거의 서사물과 근대 초기의 서사물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보다는 명칭 사용에 있어서의 감각의 유사함을 지적하려고 한다.

25) 이보경, 앞의 책, 200쪽; 루샤오펑, 앞의 책, 158쪽. 루샤오펑은 공식적 역사 서술에 속하는 열전(列傳)를 제외하고, 역시 전기로 분류될 수 있는 별전(別傳), 잡전(雜傳)과 소설의 관계에 주목한다.

의 서사물 중 특히 전기에 '신소설'이라는 표제가 붙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의 이해와 관련된다.[26] 원래부터 전통적인 소설 개념과 연속성을 가지는 글쓰기, 예를 들어 짧은 풍자나 우화의 경우 굳이 '신소설'이라 명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소설'로서의 전기는 근대 초기에 새롭게 소설 영역에 진입한 서사물이라는 의미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신소설에서는 일본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 일본의 정치소설이 '새로운' 소설의 규준이 된 것은 중국이나 한국 모두 마찬가지였다.[27] 양계초는 "국민들 중에서 학문을 전수받은 제자들이 학교 교육 틈틈이 정치소설을 손에 들고 읽었다. 아래로는 군인・시민・농민・장인・마부・부녀자・아동들 모두 그것을 읽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책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전국의 의론이 크게 바뀌었다. 저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 등 각국의 정계가 나날이 진보하는 데는 정치소설의 공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서 문학 혁명을 강조했다.[28]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의 경우 민중들이 읽기 쉬운 백화체로 글쓰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백화 문학을 배제했던 소설의 범주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소설 개념의 변화를 시도했다.

한국의 경우 역시 "「경국미담」 신소설을 번역하되 고투의 부허지설을 일체 불용하오니 구람하시는 첨군자는 고인의 사적을 보아 애국심을 분발하"라는 식의 소설 개혁론이 등장하는데, 이때 신소설은 고투의 부허지설(浮虛之說)을 허용하지 않고 현실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삼아 인정풍속을 묘사하는 가운데 근대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일본식 번역어로서의 소설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근대 초기에 사용된 소설이라는 명칭에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것은 소설과 신소설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신소설이라는 명칭이 쓰였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일종의 장르 개념으로까지 살아남았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신소설이라는 명칭 자체가, 후대에는 구식의 소설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만 애초에는 중국과 한국에 영향을 미친 novel의 번역어 '소설', 즉

26) 권보드래, 앞의 책, 109쪽.
2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80, 196쪽.
28) 양계초, 「정치소설 번역 출판의 서문」, 이보경, 앞의 책, 207쪽에서 재인용

근대사상을 전파하는 일본의 '정치소설'과 관련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소설이라는 명칭이 전통적인 서사의 의미로든, 구어체 문학의 의미로든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개념을 담고 있는, novel의 번역어인 '소설'에 '신(新)'이라는 접두어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다. 또한 소설이 전통적인 한문 서사물뿐 아니라 국문으로 된 서사물을 지칭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도 달랐다.[29] 다시 말해, 근대 초기 이전의 한국에서 소설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가벼운 내용을 단편적으로 서술한 비공식적인 한문 문장을 지칭했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 한문 문언(formal Chinese)의 글쓰기와 백화(vernacular Chinese) 글쓰기를 구별하여 전자만을 소설로 명명한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국문(vernacular Korean)으로 된 서사물이 등장하자, 처음에는 '패관소설', '소설고담' 등으로 국문소설을 지칭하다가, 얼마 뒤에는 그것 역시 소설이라고 불러, 소설이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통칭으로 쓰였다.

19세기 중엽 이후의 중국에서 구어로 쓰인 서사문학을 근대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매체로 사용하고자 했을 때, 근대사상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구어로 쓰인 서사문학을 굳이 '신소설'이라 명명할 필요 없이 '소설'로 명명하는 것으로 충분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구어체 서사문학이 소설로 불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어체 서사문학을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소설임을 쉽게 표시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국에서 소설이라는 명칭은 애초에 국문으로 쓰인 구어체 서사문학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전대와는 다른 근대적인 사상을 담은 구어체 소설이라는 것을 표시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굳이 '신소설'이라는 명칭이 중요해진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한국 근대 초기의 '소설'이라는 명칭은 전통적으로 소설로 분류되어 왔던 것과 새롭게 소설의 영역에 포섭된 것을 함께 지칭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설'과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소설'이라는 명칭은 지금까지의 소설(전통적인 한문 문장뿐 아니라 구대의 국문소설)과 다른 것, 예컨대 전통적으로는 소설로 분류되지

29)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322쪽.

않았던 전기와 국문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국문소설과는 다른 소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설의 내포: 사실과 허구의 관계

근대 초기의 서사에 접근하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는 서사를 경험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관점이다.[30] 숄즈와 켈로그의 『서사의 본질』에서 제안된 서사문학의 경험적(empirical) 유형과 허구적(fictional) 유형의 구분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의 서사에 대해 역사 전기를 경험적 유형으로, 풍자, 우화, 신소설을 허구적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31] 그러나 『서사의 본질』에서는 서사의 경험적 유형과 허구적 유형이 양식이나 장르 개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충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32] 이러한 구분을 바로 역사 전기, 풍자, 우화, 신소설과 같은 양식의 수준에서 적용시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어떠한 양식이나 장르에도 경험적인 성격과 허구적인 성격이 혼재한다는 것이다.

어떤 명칭의 내포를 그 명칭의 의미라고 정의할 때, 근대 초기 소설의 내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야기와 화자의 존재를 최소 요건으로 삼는 서사 양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설의 내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소설에서의 사실성(factuality)이라는 문제이다. 근대 초기 소설이 주로 저널리즘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설에서 사실성이라는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인다. 여기서 괴담(怪談)이나 수필류를 의미하여 사실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전통적인 소설 개념이 근대적인 발표 매체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30) 이재선, 『현대한국문학사』, 민음사, 1991;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5.
31) R. Scholes·R. Kellogg, 앞의 책, 23쪽.
32) 위의 책, 26쪽. 저자에 의하면 『돈키호테』에서 서사문학의 경험적이고 허구적인 요소를 합성하려는 시도가 성공했다고 한다.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신문의 특성상 기사의 절반가량을 논설이 차지하고 있었고, 또 그 논설 중에 서사물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사에서 사실성을 확보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임이 명백해 보이는 글에서도 사실의 보도를 넘어 서사 양식의 차원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중서 감투전골 천변에 사는 어떤 양반의 집에 딸이 있는데 십이 세에 이씨의 집으로 시집을 갔더니 신랑이 신부를 소박하고 화류방에만 침혹하여 십여 년을 돌아보지 아니하매 지금 나이 이십일 세가 되었는데 깊은 규중에서 적막한 세월을 보내니 어찌 물정의 감동함이 없으리오. 은근한 행적이 탄로하여 잉태한 형상이 나타나거늘 그 신랑이 친정으로 보낸지라. 그 부친 류승동 씨는 지금 금천 군수인데 그 모친이 쫓겨옴을 부끄럽게 여겨 그 신부를 빈 방에 가두고 독약을 억지로 먹여서 태아를 반산케 하고 또 양잿물을 억지로 먹여 입과 하문에서 피가 흐르고 혼도하여 기절하였는데.[33]

위의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한 여인의 불행한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34]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할 신문기사가 사건의 정서적인 재현을 시도하고 있는 맞은편에서 근대 초기에 소설로 통칭된 서사물들은 반대로 사실성의 확보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허구적인 것을 본성으로 하는 근대소설과 가장 가까운 신소설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실적인 서사와 허구적인 서사를 구분하는 대신 근대 초기에 소설이라고 통칭된 서사 전반이 어떻게 사실성을 확보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할 때, 『서사의 본질』에서 사실과 허구의 관계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세 가지 층위, 즉 ① 특수한 사실의 기록, ② 특수한 사실과 유사한 것의 재현, ③ 현실성의 일반화된 유형의 재현이라는 층위를 참고할 수 있다.

---

33) 「무지한 부모」, 『대한매일신보』, 1908. 8. 22.
34) 권보드래, 앞의 책, 212쪽.

①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현실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고(일기나 연대기), ②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에 좀 더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며(자서전이나 역사), ③은 사실 대신 유형을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소설).[35]

공식적인 역사의 일종인 열전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거기에 시세(時勢)와 업적에 대한 해석을 첨부한『을지문덕』,『이순신전』등의 역사 전기를 발표하던 신채호가 좀 더 허구적인 몽유록 형식을 선택하면서 "너무 사실에 가깝지 않은 시적·신화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 들어 말한 역사상 일은 낱낱이 『고기(古記)』나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나 『고려사(高麗史)』나 『광사(廣史)』나 『역사(繹史)』 같은 속에서 참조하여 쓴 말이니 독자 여러분이시여, 섞지 말고 갈라보소서"[36]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사실성(事實性, factuality)의 문제를 사실성(史實性, historicity)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과거의 특정한 인물과 사실을 당대의 문제로 일반화시켜 해석하기 때문에 역사 전기는 ②의 층위에서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소설로 통칭된 서사물에서 사실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신문기사가 오히려 정서를 촉발시키는 글쓰기를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상대적인 문제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엄밀히 획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초기의 소설은 전적으로 사실적이지도 않고, 전적으로 허구적이지도 않았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당대의 정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쓰기에 임했던 풍자나 우화 작가는 물론이고 역사 전기의 작가뿐 아니라 신소설 작가 역시 "평양성중에 옥련이라는 김씨 여아가 무한한 곤란을 겪고 외국에 유학하며 유학한 실사(實事, fact)가 있으니"라는 식으로 소설의 기록적 가치를 강조했다.[37] 이를 통해, 근대 초기의 소설이 확보하려 한 사실성은 현실의 사건을 기록하거나 사실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①, ②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16세기

35) 위의 책, 119쪽.
36) 신채호,「꿈하늘」,『단재 신채호 전집』, 형설출판사, 1987, 175쪽.
37) 권보드래, 앞의 책, 123쪽.

영국 소설의 기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사실적 허구』에 의하면 소설의 성장은 신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당시에는 이야기식 기사(news ballad), 소식지(news book), 범죄 이야기(tales of criminals), 익살담(brief accounts of jokes and jest), 연애음모담(like love intrigues) 등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소설(novel)이라고 불렀고, 따라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소설은 독립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신문기사의 일부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기사/소설(news/novel)이라고 개념이 도출된다.[38] 이러한 기사/소설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신문에 세금을 부여하면서부터 신문과 분리되었지만, 그 후에도 소설가들은 계속해서 현실 세계의 보도기자(reporter)를 자처했고, 따라서 그들의 소설 역시 창작된 것이거나 각색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라고 강변했다.『사실적 허구』에 의하면 17세기 후반까지도 소설은 여전히 사실이면서 허구인 일부로서 기사/소설 담론에 참여하고 있었다.[39]

서구의 초창기 신문에 기사와 소설이 미분화된 상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한국 근대 초기 신문의 여러 지면에 소설이라는 이름의 서사물이 게재되었으며, 기사 역시 서사문학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일반화시킨다.[40] 가장 허구적일 것 같은 신소설의 작가마저 사실의 기록을 강조하고, 가장 객관적일 것 같은 신문기사가 정치적인 소재는 물론이고 지극히 사적인 가내사(家內事)나 음사(淫事)를 세세히 서술하는 근대 초기 신문의 글쓰기는 기사/소설 담론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사와 소설의 미분화는 사실과 허구의 관계 역시 명확하게 분화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신문기사가 사실 전달에 충실해야 하고, 소설이 개연성 있는 허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거나 관념적인 구분에 불과하다. ③과 같은, 일반화된 유형의 재현이라는 완미한 리얼리즘보다는 특수하면서도 선정적인 실제 사실의 기록이 당시의 감각으로는 보다

38) L. J. Davis, *Factual Fictions: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46쪽.
39) 위의 책, 115쪽.
40) 따라서 "서사적 논설이나 논설적 서사는 모두 우리 근대 문학사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는 문학 양식"이라는 김영민의 해석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김영민, 앞의 책, 77쪽)

더 소설적이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을 넘나들며 공부를 하고 우연히 아버지와 재회한다는 『혈의 누』의 옥련의 행적에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옥련이라는 김씨 여아가 무한한 곤란을 겪고 외국에 유학하며 유학한 실사가 있으니"라는 보증, 즉 그러한 사건이 실재했다는 보증에 의해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41]

근대 초기 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당대를 취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중 가장 허구적인 신소설에서도 바로 지금이라는 시점은 대단히 중요했다. 사건의 종결을 서술하지 않으면서, " 년 월 일, 이 저작자의 정필한 당시에는 이상 사실만 있었오"라고 이유를 달고 있는 것처럼, 소설을 쓰는 시점과 스토리의 종결 시점이 일치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유명인사들의 동향, 철도・전차・전보 부설 등과 같은 사회 풍속도 정확하게 보고되었다.[42]

이런 맥락에서 "근일에 저술한 박정화, 화세계, 월하가인 등 수삼 종 소설은 모두 현금의 있는 사람의 실지 사적이라"라고 말한 이해조가 또한 "소설의 성질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실적만 들어 기록하면 취미도 없을 뿐 아니라 한 기사에 지나지 못할 터인즉 소설이라는 명칭할 것이 없고"라고 말한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근대 초기의 소설가들이 '소설이라 명칭할' 만한 것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이 사실일 필요가 있었다. 유형의 재현, 즉 전형성(typicality)이라는 리얼리즘의 규범이 사실과 허구가 구분된 후에야 허구의 사실성(寫實性, reality)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면, 그 규범은 신소설을 포함한 근대 초기의 소설 전반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

41) 소설가가 사실만을 서술하는 한, 그의 소설은 있을 수 있는, 개연적인 사건만을 다룰 필요가 없어진다. 개연성보다 더 확실한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창기의 소설은 오히려 개연적이지 않은 사건—선정적인 사건, 이국적인 사건, 우연한 사건 등—을 소재로 삼은 경향을 보일 때가 많았다.(L. J. Davis, 앞의 책, 110쪽)

42) 권보드래,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귀의 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87쪽.

5.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의 근대 초기에 소설로 통칭된 서사물들의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진화론적 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근대 초기의 서사물들은, 근대소설로 발전할 가능태인 신소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설 미달로 평가되기 쉽다. 그러한 관점을 벗어날 때, 근대 초기는 근대소설과 친연성을 갖는 신소설뿐 아니라 전통적인 개념의 소설 및 전대에는 소설로 분류되지 않다가 새롭게 소설 영역에 유입된 서사물 등이 공존하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서사물들이 소설이라는 단일한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은, 근대소설의 번역어로서의 소설과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소설의 외연이 중복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복의 양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달랐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통적인 한문 문장은 물론 국문으로 쓰인 서사물도 소설로 불렸기 때문에 신소설이라는 명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더 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설이라는 명칭의 내포와 관련하여 근대 초기의 소설은 단지 허구적이었던 것만이 아니라 사실성에도 충실해야 했다. 이는 소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대 초기 소설은 그 외연이나 내포에 있어 근대소설과는 다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바, 근대 초기의 소설 개념의 외연과 내포가 근대소설의 그것으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논문투고 : 2009.03.23, 논문심사완료: 2009.04.22, 게재확정 : 2009.04.30)

핵심어: 서사, 근대소설, 신소설, 순문학, 국문, 사실, 허구, 기사/소설

〈참고문헌〉

권보드래, 「신소설의 근대와 전근대-〈귀의 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_____,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권영민, 「개화계몽시대 서사양식의 장르 분화」, 『한국문화』 17,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_____,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교봉・설성경, 『근대전환기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5.

김동인,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학지광』, 1919. 1.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양식론고』, 아세아문화사, 1980.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손정수, 「개화기 서사의 장르적 성격」, 『상허학보』 10, 깊은샘, 2003.

이보경, 『문(文)과 노벨(novel)의 결혼: 근대 중국의 소설 이론 재편』, 문학과지성사, 2002.

이재선, 『현대한국문학사』, 민음사, 1991.

임화, 임규찬・한진일 편,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조동일, 「중국・한국・일본 '小說'의 개념」,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3.

_____, 『동아시아문학사비교론』, 서울대출판부, 1993.

_____, 『하나이면서 여럿인 동아시아문학』, 지식산업사, 1999.

루샤오펑,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사에서 허구로: 중국의 서사학』, 2001.

Davis, L. J., Factual Fictions: The Origins of the English Novel,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Scholes, R. and Kellogg, R., 『서사의 본질』, 임병권 옮김, 예림기획, 2001

〈Abstract〉

The extension and intension of the term of novel in the early modern period

Yi, Soo-hyung

The era of Korean modernism in its infancy, from late in the 19th century to early in the next, witnessed a host of various narratives which were called a soseol(소설) in the lump. These narratives' rich emergence was especially caused by the contemporary newspapers. They featured various narratives, which included satires, fables, biographies and new-novels.

These narratives except new-novel, however, were mostly so digested that they couldn't describe characters, events, and so on. Researchers on early Korean literary era have centered their narrative-related-discussions on mainly new-novel, which only satisfied the norms of Western European novel they brought in. The interest in digested narratives has been formed relatively recently. This interest has extended the scope of narratives and emphasized that narratives at that period had not been transplanted from the Western but handed down traditionally.

The scope of narratives were so wide-ranged that its systematical organization seems to be very har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descriptively illustrating narratives as they were or prescriptively grouping narratives into genre were attempted.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the definition of narratives identified at that time and investigate into features of narrarives from the aspect of the fact-fiction

relation.

Key Words : narrative, novel, new-novel, belles lettres, vernacular Korean, fact, fiction, news/novel